채아람과 만나기로 한 xx역 앞.

주위는 외출 나온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주말에도 밖에 나온 건데,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하기야 저 사람들은 나하곤 정반대인 성격이긴 하지.

집에서 쉬는 것보다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성격. 혼자보단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다.

그런 활발한 사람 중 하나인 여자애가 손을 팔락팔락 흔들며 다가왔다.

“선배! 일찍 오셨네요?”

“왜. 늦게 나올 줄 알았어?”

“음~ 약간은요?”

“근데 일찍 나온 거 보면 선배도 사실 오늘 기대하신 거죠?”

채아람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 주말에도 저걸 보게 될 줄이야.

“연습실은 제가 예약해뒀어요. 바로 가요!”

===

채아람이 날 데려간 곳은 지하 1층에 있는 실내연습실이었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거울이 여러 개 달려있고, 나머지는 별다른 가구 없이 공간만 널찍하게 트여있다.

“제가 주말에 연습할 때 대여해서 쓰는 곳이에요. 괜찮죠?”

“확실히 춤 연습하긴 좋아 보이네.”

“넓어서 촬영하기도 좋아요. 여기에 핸드폰 삼각대 놓고, 제가 거울 앞에 서면….”

“짠! 어때요, 선배? 잘 나오죠?”

핸드폰 화면 속에 채아람이 손을 흔들었다. 초점도 잡혔고, 움직임도 잘 나오고 있다.

“응. 좋은데? 이대로 찍어도 될 것 같아.”

“제가 미리 확인해뒀거든요. 촬영 준비는 됐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선배가 도와주셔야 해요.”

채아람의 비장한 목소리에 새삼 긴장했다. 대체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실은 이번에 댄스팀 지원 영상으로 찍는 게 아이돌 커버거든요.”

“근데 아무리 찍어봐도 아이돌 무대에서 나오는 현장감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관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관객?”

“네. 무대에서 추면 사람들이 호응해주잖아요? 하지만 연습실에서 저 혼자 찍으니까 느낌이 안 살더라구요.”

“그럼 나보고 하라는 게...”

“네! 관객 역할을 해주세요!”

뭐야. 난 또 주말에 불러내길래 엄청난 걸 시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일 아니잖아.

“근데 관객이 필요한 거면 그냥 사람들 많은 공원 같은 데서 찍으면 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알 수도 있잖아요. 저 춤추는 거 비밀로 하고 있는데….”

아, 맞다. 공원이면 들킬 가능성이 있겠네. 미처 그건 생각을 못 했다.

“저기요, 선배. 여기에 부른 것도 저희 사이니까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선배처럼 부르지도 않았다구요.”

우리 사이?

채아람하고 나와의 사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을까. 같은 학생회 소속에, 우연히 춤에 관한 걸 알게 된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뭐가 없는데. 채아람이 날 부르는 대로 ‘선배’일 뿐인 사이다.

그 위화감에 나는 얼떨떨하게 채아람한테 물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다.

어쩐지 내 말에 놀란 듯이 입을 벌린 채아람은 나를 빤히 바라보고는.

비밀을 숨기는 어린아이처럼 얄궂게 웃었다.

“음... 그러게요. 무슨 사이일까...”

“선배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데요?”

채아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뭘 물어봤는지 깨달았다.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묻는다니.

그거 완전...!!

“아하하! 왜 선배가 물어봐 놓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 아니다!?”

“정말요~? 전 선배가 진지하게 물어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진심으로 대답해드릴까요?”

“제발 하지 마!”

“에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둬요. 오늘은 선배가 제 관객 역할이니까….”

“...봐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이란 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채아람은 만족했는지 키득키득 웃기만 했다.

그래…. 무슨 사이든 좋으니까 더 놀리지만 않으면 됐다….

===

“그러면 카메라 찍는 거랑 관객 역할. 이 두 개만 하면 된다는 거지?”

“네. 선배는 그것만 맡아주시면 돼요.”

채아람이 부탁한 일은 정말 별것 없었다.

촬영하는 걸 도와달라는 것과 관객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

그래봤자 버튼을 누르는 것하고, 앉아서 채아람의 춤을 보는 게 다였다. 굳이 내가 필요한가 싶긴 하다.

“정말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요. 그게 관객이잖아요?”

보고만 있는 걸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채아람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준비됐어요, 선배. 셋 세고 촬영 눌러 주세요.”

“셋... 둘... 하나...”

“찍는다.”

(띠링)

핸드폰의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나는 핸드폰 삼각대 옆에 앉았다.

“후우우...”

아람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 팔을 하늘로 뻗는 익숙한 동작이 기억을 스쳤다.

(채아람 메인 이벤트 2 장면 회상)

지금 연습하는 건 그날 밤. 우연히 내가 봤던 아람이의 춤이었다.

힘차게 내딛는 스텝과 날아오르는 듯한 움직임.

전에 봤던 춤과 같았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어딘가 불안한 표정과 어색하게 느껴지는 동작.

“으, 으윽.”

그리고 작은 실수들.

동작 도중에 넘어질 뻔한 아람이가 춤을 멈추곤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왔다.

“...후우. 선배.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응. 준비되면 말해줘.”

아람이 다시 준비를 마치고, 채아람의 신호에 맞게 촬영 버튼을 눌렀다.

(띠링)

채아람이 다시 하늘로 손을 뻗었다.

그 뒤로도 채아람은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춤을 반복했다.

실수 없이 마무리했을 때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춤을 시작했다. 조금 더 나은 영상을 찍고 싶다면서.

그날 밤에 봤던 춤과 지금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어쩐지 오늘 채아람의 춤이 내겐 더 멋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처럼 오늘도 나는, 빠져드는 듯이 채아람의 춤을 바라보았다.

다만 저번처럼 멀찍이 떨어진 골목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더 가까워진 곳에서.

===

“선배! 여기 선배 음료수요.”

댄스 영상 촬영이 끝나고, 채아람과 나는 밖으로 나와 빌딩 근처 벤치에 앉았다.

오늘 도와준 보답이라며, 채아람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음료수와 함께.

“고마워. 잘 마실게.”

“아뇨, 제가 고맙죠. 제 부탁 들어주신 건데요.”

“난 앉아서 본 게 전부인데?”

“에이~ 그게 엄청 도움 된 거예요! 덕분에 영상도 만족스럽게 나왔다구요.”

채아람은 정말 그거면 된 건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난 네가 춤 감상이라던가. 춤 동작 같은 거라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 그거요?”

“선배, 어차피 춤 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

“히히. 근데 그래서 안 물어본 건 아니에요.”

채아람은 한 모금 음료수를 마시곤 말을 이었다.

“선배. 그거 알아요? 춤을 추는 사람은 자기 춤을 못 봐요.”

“춤추느라 바쁘거든요. 다음 동작도 생각해야 하고, 표정도 지어야 하구.”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되는 대로 몸만 움직이는 거 아냐?”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데?”

“그럴 때는요.”

옆에 앉은 채아람이 웃으면서 내 눈을 가리켰다.

“관객의 눈을 봐요.”

“지금 내가 추는 춤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루하면 지루하다. 별로면 별로다. 솔직하게 말해주거든요.”

관객이 무대를 보는 것처럼 무대 위의 사람도 관객을 본다니.

무대 위에 서본 적 없는 나는 생각도 뮷 해본 이야기였다.

“참고로 아까 선배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게요~?”

...어?

“어, 어떻게 보고 있었는데?”

“안 알려줄 건데요?”

채아람이 능글맞게 웃고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요즘 맨날 혼자서만 연습해서 좀 불안했거든요.”

“고마워요, 선배. 덕분에 좀 자신감 찾고, 촬영도 잘 할 수 있었어요.”

딱히 놀리지도 않았는데. 채아람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모습이 약간 귀엽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살짝 웃음이 지어졌다.

“그랬다니 다행이네. 다음에 또 부탁할 일 있으면 말해. 나도 오늘 재밌었어.”

“어, 진짜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보기만 하는 거잖아.”

“글쎄요? 더 부려 먹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놀려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충분히 도와주셨으니까. 다음에 부탁할게요. 영상도 보내야 하니까요.”

채아람은 뒤돌아보더니 손을 붕붕 흔들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선배!”

“응. 들어가.”

“아, 맞다! 선배!”

“왜?”

“그래도 오늘 재밌었죠?”

...자기가 물어봐 놓고는 대답도 안 듣고 가버리냐.

멋대로 불러놓고 일 시킨 다음에 재밌었냐니.

...눈을 보고 안 건가?